

목양칼럼

당신이 부르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나단 푸시는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 네 가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첫째, 마음껏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는가?
- 둘째, 목놓아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가?
- 셋째, 목숨 바칠 신조가 있는가?
- 넷째, 목숨 걸고 따를 지도자가 있는가?

젊은이들에게만 필요한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모두에게 물어져야 할 질문이며

특히 모든 사람은 자기가 부를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더운 여름이라고 “덥다, 더워, 너무 더워”

라는 “덥다 song” 만 반복하여 부르시겠습니까?

이 여름에도 단기 선교의 깃발을 흔들며

저마다 사명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초여름 시작되어 뜨거운 이 여름날까지 멈추어지지 않는 노래가 있는데

오늘은 필라에서, 시애틀에서, 그리고 알마티에서도 이어져 울려 퍼집니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더운 여름,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단기 선교팀을 중보하는 권장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힘을 내어,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원들은 오늘도 사명의 노래를 목놓아 부르겠습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040 中文 (347)965-0343 Fax (718)886-5555 http://www.kapcq.org

원로목사	장영춘	담임목사	김성국
부목사	김도현/QPEM (347)450-7736	김재형 (347)761-7663	오인수 (267)205-1295
전도목사	이신은 (646)220-8324	다민족선교사 송요한 (917)940-0596	
전도사	고부영/1교구 (917)423-5298	계화자/2교구 (646)641-8944	이양미/3교구 (516)717-8720
	함미희/4교구 (917)359-2857	황혜옥/중국교포, 중국어부 (718)825-6969	천위지/중국어부 (347)965-0343
	진기음/EEP (201)835-3166	소유영/행정 (917)318-7030	전성호/청년선교부 (201)370-3455
교육전도사	이명옥/영아부 (646)327-6438	강지영/유아부 (718)801-2339	이소영/유치부 (347)610-5399
	평정은/유년부 (347)804-5366	차평화/중등부 (703)819-8785	최진식/ (646)887-7419
	손요한/중학/과부 (646)789-1118	정신규/관리 (646)651-7255	홍현숙/서무 (201)759-0820
직인	Shen de Guia/QPEM (917)254-7455	오재혁 (646)662-9015	
찬양대	1부 / 임마누엘 찬양대	2부 / 호산나 찬양대	3부 / 시온 찬양대
	4부 /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 / 최진식	지휘 / 소유영
	반주 / 임세현	반주 / 김정윤 이승은	반주 / 송소영
		반주 / 최미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

- 머무는교회, 더하는교회, 배우는교회, 나누는교회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원로목사 장영춘
PASTOR EVENTUS, REV. YOUNGHOON CHANG

담임목사 김성국
SENIOR PASTOR, REV. SEOUNG KOOK KIM

주후 2018년 7월 29일
제 44-30호

주일예배 (1,3부)

1부 / 오전 8:30 김재형 목사
2부 / 오전 10:30 오인수 목사
3부 / 오후 12:15 송요한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 예배선언	CALL TO WORSHIP		사회자
* 참회와 경배	CONFESSION & ADORATION		다같이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HYMN	19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1부 / 함용식 장로 3부 / 고국환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요한복음 6:26-35	사회자
		고린도전서 9:19-27	사회자
찬양	CHOIR	비추소서 예수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임마누엘 찬양대 시온 찬양대
말씀	SERMON	하나님의 일 바울의 선교 방향	김재형 목사 송요한 목사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497	다같이
광고	ANNOUNCEMENT		사회자
* 찬송	HYMN	358 / 1절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기도	사회자
* 표는 일어섬			

주후 2018년 7월 29일

주일예배 (2,4부)

2부 / 오전 10:30 오인수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예배부름 CALL TO WORSHIP		사회자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영광송 ANTHEM		찬양대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2부 / 황주현 장로 4부 / 송동울 장로	
광고 및 환영 ANNOUNCEMENT		사회자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357	다같이
성경봉독 SCRIPTURE	사사기 3: 15-17	사회자
찬양 CHOIR	우리 주님 친히 널 찾으시리 사랑은 영원하리	호산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 SERMON	원손잡이	오인수 목사
* 찬송 HYMN	모든 상황 속에서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 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섬

주일 오후 연합 예배

오후 3:30 (7/29/18)	사회: 김재형 목사
예배선언	사회자
경배와 찬양	다같이
광고	사회자
성경봉독	사회자
	야고보서 5:16-18
찬양	연합 찬양대
말씀	김재형 목사
	엘리아의 기도
합심 기도	다같이
축도	김재형목사

현재 진행 중인 단기 선교

캄보디아(7/26~8/4), 카작스탄(7/26~8/4), 필라델피아(7/28~8/4)

수요 기도 예배

오후 8:00 (8/1/18)	사회: 김재형 목사
예배선언	사회자
경배와 찬양	다같이
광고	사회자
성경봉독	사회자
	사도행전 13:1-4
말씀	첸위지 전도사
	모범된 교회 III
찬송	505
결단기도	다같이
축도	김재형 목사

새가족 환영회

4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교회소식

7월 선교의 달 - 가서 전하라

환영

새로 오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하 친교실에 새가족을 위한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두 초대합니다.

행사 및 모임

7/29(주) 주일 오후 연합 예배	8/1(수) 지도원 성경 공부	8/5(주) 선교회 월례회
8/10(금) 구역예배	8/11(토) 친목 남시 대회	
8/16~18(목~토) 청년 연합 여름 수련회	8/21~24(화~목) 제 3회 Summer Music Camp	

알림

- 오늘 QBC는 전체 여름 특강으로 지하 친교실에서 오후 2:15~3:00까지 진행됩니다.
* 주제: 정경(Canon) * 강사: 손요한 전도사
- 주일 오후 연합 예배가 QBC를 마친 후 오후 3:30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 현재 캄보디아, 카작스탄, 필라델피아 단기 선교팀이 사역중입니다.
* 단기 선교팀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단기 선교사 파송 지역: 할렘 (8/28)
- 2018 청년 연합 여름 수련회 안내 1) 일시: 8/16~18(목~토) 2) 주제: Radical (David Platt)
3) 장소: Liebenzel Retreat Center 4) 강사: 조상명 목사
- 제 3회 Summer Music Camp 안내 1) 일시: 8/21~24(화~금), 오전 9:00~오후 3:00.
2) 장소: 퀸즈장로교회 3) 오케스트라와 합창 중 택일 4) 문의: 최효진 권사, 영미 라티몰 집사
- 특별 활동 단원 모집 안내
1) G2G 어린이 합창단 (K~5학년) 2) G2G 청소년 합창단 (6~12 학년) * 문의: 영미 라티몰 집사
3) 하랑예찬 바디워십 (K~2학년) 4) Fresh Dancing (6~12 학년) * 문의: 임동진 집사
5) 국악: 장구 (2~5 학년), 난타 (6~12 학년) 각 악기별 선착순 10명 * 문의: 이정혜 권사
* 모집 마감: 8/10(금)
- 2018 쿼장 친목 남시 대회 안내 1) 일시: 8/11(토) 오전 7:30 교회 출발
2) 회비: 1인당 \$80.00 (60명에 한함) 3) 장소: Brooklyn Sheepshead Bay
4) 문의: 함용식 장로, 송동울 장로
- 여름철 휴가를 가시는 분들은 교구장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8/4(토) 토요일 총동원 새벽 기도회 찬양 담당: 70,80대 선교회 (다음주: 호산나 찬양대)
- 가족기부 장학기부 류제민 집사, 류순영 권사, 홍보영 학생

새가족

김지연 (청년선교 3Y2) Chris Joe (청년선교 3Y2)

병 환 오광환(김경자 4WS) 교우께서 NY 병원 606호실에 입원 중입니다.

금식기도

주 / 송수진 최지연 이 빈 황의성 김미연
월 / 송수진 김현정 강혜영 최지현 강경아 김미연
화 / 송수진 김현정 강혜영 황의성 강경아 김미연
수 / 이명옥 조나영 정혜정 정경미 윤지영 조경옥 조나영 황보명옥 조정숙 최은숙
목 / 조경옥 정혜정 정경미 이은솔 윤지영 조나영 황보명옥 이명옥
금 / 조경옥 윤지영 이명옥 조나영 정혜정 황보명옥
토 / 최은숙 이은솔 조나영 황보명옥 윤지영 이명옥 오영순

헌금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1부	오전 08:30	본당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15	
	4부	오후 02:00	
	QBC	오후 02:15	
	영어	오후 12:00	양순관
	중국어	오전 09:30 오후 02:30	
	러시아어	오전 08: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본당
수요 기도 예배	수요일	오후 8:00	
새가족 환영 모임	화요일	오후 7:30	친교실
전도폭발훈련	화요일	오후 7:30	고등부실
제자, 영성 훈련	목요일	오후 8:00	

영어부	1부 주일 오전 10:30 2부 주일 오후 12:15	영어부실(지하)
유아부		유아부실(2층)
유치부		유치부실(2층)
유년부		유년부실(4층)
초등부		초등부실(3층)
중등부	주일 오전 10:30	중등부실(4층)
	토요모임 오전 9:00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고등부실(3층)
	금요모임 오후 7:00	
청년 대학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유아부실
청년 선교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중등부실

출석

1부 예배	331	러시아어 예배	31	영어부	31	중등부	59
2부 예배	396	청년 선교부	80	유아부	28	고등부	47
3부 예배	309	QBC	241	유치부	34	청년 대학부	30
4부 예배	139	새벽 예배	954	중국어 교육부	27	교회 학교 예배	409
영어 예배	180	수요 기도 예배	161	유년부	81	주일 낮 장년 예배	1785
중국어 예배	319	새가족 환영회	26	초등부	72	주일 낮 총계	2194

7월 봉사위원(8월 봉사위원)

책임 장로: 함용식 장로(남형욱 장로)

헌신기도	홍승룡 장로	허경화 장로	박영권 장로	차상남 장로
책임권사	윤순자 권사 (차동미 권사)	이희정 권사 (최은숙 권사)	최봉순 권사 (김희은 권사)	청년부
실내 안내	최경선 오영자 홍지혁 강석춘 김동순	이정훈 임승룡 허영미 문인숙 이미셀	오성태 장지숙 정민영 허민정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김선의 조한결 신예지 윤국현
헌금 위원	윤영신 심인보 조규옥 윤순자 장현미 차광혁 채송자 강석춘	이지수 허영미 문인숙 임승룡 김미권 전용력 전인자 송명남	심원희 오성태 고종빈 박석미 한원희 허민정 심화숙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신예지 조한결 윤국현 박재상 소승우
차량 안내	이영호	정사용	윤지현	최성호

화요일 새가족 환영: 루디아/여호수아(다비다/갈렙) 주일식사: 한나/사라(다음주: 교포부)

파송, 협력 선교사

파송선교사: 알마티퀸즈장로교회 김관중 선교사 / 캄보디아 이일훈 선교사 박수영 선교사

협력선교사: 미주크리스천신문 / 한인세계선교협의회 / 단비TV / 여운세(캄보디아국제신학교) / 국제장애인선교회(미국) / 강인중(케냐) / 홍황식(파키스탄) / 김성일(터키) / 박선숙(미국 장애인) / 최득신(프랑스) / 김명희(미국 할렘) / 최동훈(케냐) / 이동철(온두라스) / 이갈렙(중국) / 김호동(불가리아) / 류동하(한국 경남 통영시 사랑도)

제 52 문 :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로 주니까?

답 : 모든 박해와 고통 가운데에서도 고개를 들어서 내 대신 하나님의 정죄를 이미 당하심으로 나로부터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신 심판의 주를 확신있게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과 나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형벌에 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비롯한 모든 선민들은 자신에게로 인도하여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월- 사도신경 / 찬송가 144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요한복음 7:1-9

예수님의 생애는 죽기 위하여 사신 생애입니다.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하여서입니다. 그 형제들마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 (5절)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뜻,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살고 있나요? 얼마나 그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있나요? 늘 하나님께 귀 기울임으로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화- 사도신경 / 찬송가 202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요한복음 7:10-18

예수님께서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1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16절)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수- 사도신경 / 찬송가 43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요한복음 7:19-24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과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라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십

니다. 이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겸손히 감사함으로 그의 하는 일들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주의 날을 누리는 자가 됩시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목- 사도신경/ 찬송가 545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요한복음 7:25-29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 몰라야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출생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배경에서 자라났는지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본 것만을 믿지만, 그들이 잘 모르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금- 사도신경 / 찬송가 80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요한복음 7:31-36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그리스도이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보았고, 그들 스스로도,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인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 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토- 사도신경/ 찬송가 526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요한복음 7:37-44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든지 목마르면 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목마른 지 느끼지 못하거나, 목말라도 예수님께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면서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안 되겠습니까. 목마르면 언제든지 나아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